

9일 오전 함평다이내스티CC 1번홀에서 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 프로암대회 출전선수와 초청인사들이 시타 직후 박수를 치며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마운드 붕괴 KIA 4연패... 끝까지 이대론 안돼

“연패가 문제가 아니다. 이대론 미래가 없다고 더 큰 문제다.”

LG와의 경기가 비로 취소된 9일 서정환 KIA 감독은 “지난해 6연패를 당할때도 이렇게 답답하지 않았다. 올해는 마운드가 완전히 붕괴됐다. 용병 교체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승산이 없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서 감독의 말처럼 지난해 최강 마운드를 자랑하던 KIA는 올 시즌 초반 선발부터 미들맨까지 투수진이 붕괴되면서 추락의 늪에 빠졌다.

지난해 삼삼과 함께 팀 방어율 3.33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던 KIA는 팀 평균자책점이 3.91로 8개 구단 가운데 7위다. 팀 성적도 4연패에 빠져 선두 SK에 5.5게임차, 꼴찌로 추락했다. 28경기중 4연패만 벌써 두 번째다.

아직은 시즌 초반인 만큼 ‘선두’와 ‘꼴찌’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지만, 고질적으로 불안정한 마운드가 계속될 경우 중반으로 접어들더라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문제다.

KIA는 2007시즌을 맞이하면서 지난해 ‘원투펀치’로 활약한 그레이싱어와 김진우가 전력에서 이탈했다.

2006시즌에 14승을 기록했던 그레이싱어는 일본 야쿠르트 스왈로스스로 옮겼고, 10승 투수 김진우는 개막 이전부터 2군을 맴돌고 있다.

여기에 최고 구속 150km를 뿌려댄 고교 특급 정영일도 KIA의 2007 신인 1차지명을 뿌리치고 마교행을 택했다.

팀자책점 3.91...7위로 추락

에서튼·이대진 제구력 불안

확실한 선발·중간계투 없어

결국 KIA는 별다른 전력보강 없이 윤석민, 이대진, 에서튼, 전병두, 양현종 등 5선발 체제로 2007시즌에 들어섰고, 한달여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

지난해 중간과 마무리를 오가던 윤석민이 1선발로 오를 정도로 무게감이 떨어진 마운드의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팔꿈치가 아픈 ‘신인용병’ 에서튼과 부상 후유증이 남은 이대진은 등판 간격이 5일이고, 등판을 하더라도 불안한 제구력을 노출하고 있다.

또 지난 시즌 선발 등판해 종종 맹활약했던 좌완 전병두도 구위 난조로 미들맨으로 강등된 뒤 2군으로 추락했다.

“고졸 투키” 양현종은 초반 좋은 구위를 보여 5선발로 낙점됐으나, 이후 들쭉날쭉한 제구력으로 결국 2군으로 강등됐다. 150km대의 ‘몰직구’를 구사하는 광철도 타자 한명 잡지 못하고 난타당한 뒤 2군으로 내려갔다.

여기에 지난해 5선발로 나서 감쪽승을 챙겨주던 이상화마저도 1군과 2군을 오르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간허리는 더욱 심각하다. 윤석민이 선발로 옮기면서 공백이 생긴 중간계투진은 든든한 ‘미들맨’ 정원이 부족때문에 2군으로 내려갔고, 지난 겨울 훈련 도중 다친 장문석도 6월초에나 컴백이 예상되고 있다.

그나마 마무리에 한기주가 버티고 있지만, 팀의 연패로 등판 기회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해결책은 김진우의 복귀 뿐이지만, 매년 어깨 통증으로 시름시름 앓아온 탓에 이마저도 믿을 수가 없다.

서 감독은 “답은 하나다. 용병을 교체해 투수력을 보강하는 방법 밖에 없다”면서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안된다. 현재 미국에서 대체 용병을 물색하고 있지만, 쓸만한 투수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선수들 “그린·페어웨이 관리 잘 됐어요”

### ■ KB 스타투어 2차대회 오늘 함평다이내스티서 티오프

오후 1시 Xports서 생중계

한국여자프로골프 2007 KB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가 10일 4계절양산디 골프장 함평다이내스티CC에서 개막된다.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아 그린과 페어웨이 컨디션이 최상의 함평다이내스티CC(파72·6천297야드)에서 10~12일까지 3일간 57홀 스트로크 플레이로 펼쳐질 이번 대회에는 국내 여자프로골프 1인자 신지애(19·하이마트)와 박희영(20·이수건설) 등 국내 정상 여자골프들이 총 출동, 정상의 샷 대결을 펼친다.

국내 여자프로골퍼 1인자로 군림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은행 스타투어 대회와 한 번도 우승 인연을 맺지 못한 신지애는 “이번 대회에서는 반드시 고향 분들 앞에서 우승 트로피를 안겠다”며 “지난해 보다 그린과 페어웨이 등이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 최나연(20·SK텔레콤)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부담도 있지만 지난해 좋은 기억을 살려 올 해도 우승하겠다”며 “그린과 페어웨이 상태가 아주 훌륭해 예감이 좋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 프로암대회 이모저모 신지애 “그린 난이도 높아 퍼팅이 변수”

○스타투어 2차대회 개막에 앞서 9일 열린 프로암대회에서는 여동수 국민은행 부회장, 한명현 KLPGA 부회장 등이 시타를 한 후 출전선수 40명과 초청인사들이 라운딩. 초청인사들은 동반 프로에게 그린에서 퍼팅각각을 익힐 수도 있도록 연습 퍼팅과 그린 주변 어프로치 기회를 주는 등 대회를 대비해 샷을 가다듬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 프로들도 그림을 잡는 법부터 체중이동, 그린 경사와 퍼팅라인까지 알려주는 등 세심하게 지도. ○이날 프로암대회를 치르고 난 프로들은 한결같이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함평다이내스티CC의 페어웨이와 그린상태에 대해 찬사. 디펜딩 챔피언 최나연은 “지난해 9월 대회때 보다 그린과 잔디 정비가 더 잘된 것 같다”며 “페어웨이 잔디 밀도가 좋아 좋은 샷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칭찬. 이날 시타식에서 사회를 본 그랜 이창명씨도 함평다이내스티CC가 LA에 있는 산타바바라 골프장과 분위기가 흡사하다고 칭찬.

하지만 프로들은 ‘약간 느린 듯’한 그린 적음에 어려움을 호소. 신지애는 “그린이 약간 느린 듯 하면서도 난이도가 높아 이번 대회 퍼팅이 우승 함배를 가를 것”으로 전망. ○국민은행 스타투어 2차대회에 출전하는 국내 정상급 여자골퍼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직접 ‘거리측정기’와 GPS등 첨단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확한 거리를 산출하는 모습. 안선주, 최나연, 문현희 등 우승을 다투는 선수들 모두 드라이버 샷을 한 후 정확한 거리 산출을 위해 거리측정기나 GPS등을 이용해 다음 샷의 클럽을 고르는 신경함을 보이기도.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프로들은 지난 동계훈련 동안 체력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도. 신지애는 “동계훈련동안 ‘밸리댄스’와 ‘힙합’을 통해 재미있게 체력훈련을 했다”며 살이 좀 빠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체력훈련을 많이 해 체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고 미소.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신지애(오른쪽)가 프로암대회에 참가한 허성관 광주과학기술원장의 그림을 교정해 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프로암대회에 참가한 여자프로선수와 초청인사들이 함평다이내스티CC 16번(파3)홀 그린에서 퍼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